



#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관계

김진<sup>1</sup> · 차남현<sup>2</sup>

<sup>1</sup>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f Mongolian University Students

Kim, Jin<sup>1</sup> · Cha, Nam Hyun<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Jeongeup, Republic of Korea;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Life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sexual attitudes among Mongolian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used. Participants include 200 students from 23 universities in U city in Mongolia. Data were collected from 1 December to 30 December of 2019.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rough Google survey was used. Data were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 with SPSS 26.0 for Window Program. **Results:** We found the differences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sex education, and sexual knowledge ( $t=5.43, p<.001$ ) and sexual attitudes ( $t=2.21, p=.028$ ),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knowledge.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marriage thought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health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sexual attitud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emaining variables were high. Sexual knowledg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sexual attitudes followed by the sexual act ( $\beta=.30, p<.001$ ), reproductive organs ( $\beta=.29, p<.001$ ), solving sexual desire ( $\beta=-.25, p<.001$ ), sexual experience ( $\beta=-.16, p=.021$ ), and sex education ( $\beta=-.16, p=.028$ )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0.0%.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rovide a basic data and help to understanding of sexual attitudes among Mongolia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Mongolia, Sex, Knowledge, Attitudes, Student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몽골인은 드넓은 초원에서 오랜기간 유목민족으로 생활하다 보니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게르(Yurt)라는 가옥에서 생활하여 왔다[1]. 이러한 주거환경은 몽골의 조혼과 성 풍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몽골인은 주변 이웃이 많지 않다 보니 상대만 있으면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주로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하

는 경우가 많았다[2]. 이러한 근친혼은 우수한 혈통을 얻기가 어려워 우수한 혈통을 얻기 위해 초원에 남자 손님이 오면 아내와 하룻밤 동침시키는 성풍속을 만들었고[3], 게르라는 원룸 형태의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성생활은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2].

현대로 들어서면서, 서구 문화의 유입, 정보매체의 발달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몽골에서 성에 대한 개방적 가치관을 지속시켰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성에 대한 책임과 인식 태도가 확립

**주요어:** 몽골 성, 성지식, 성태도, 대학생

\* IRB 승인기관 및 번호 [IRB No: 1040191-201912-HR-021-01]

Corresponding author: Cha, Nam Hyun (<https://orcid.org/0000-0003-3956-455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Life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1375 Gyeongdong-ro, Andong-si, Gyeongsangbuk-do, 36729, Republic of Korea

Tel: +054-820-7314 Fax: +054-820-6730 E-mail: yeoreo@daum.net, yeoreo@anu.ac.kr

Received: 26 March 2021 Revised: 13 May 2021 Accepted: 14 May 2021

되지 않은 대학생에게 왜곡된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을 유발시켜 개방적인 성행동과 인식을 증가시키고[4], 성병과 의도치 않은 임신의 위험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5]. 더구나, 대학생의 성행위는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경향이 강하므로[6] 이들의 성충동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생식건강관리 지식과 태도를 배양함이 필요하다[5].

몽골은 국가적으로 2013년부터 9월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달'로 지정하여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성 위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7] 법적으로 결혼 연령을 18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젊은이들은 15~16세에도 결혼을 하며 결혼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제도화된 결혼 보다는 언젠가 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또한 젊은이들은 사랑하기에(44.0%), 사랑과 즐거움 때문에(56.0%) 성관계를 하고 혼인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며[2], 혼외관계나 동거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는 [8] 등 청소년 시절부터 성개방은 심각한 수준이다[9]. 또한 몽골의 대학생들은 부모로서 준비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고[10], 대학생 시기에 동거와 출산 및 결혼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문제시하지 않는 등 개방적인 성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성관계로 젊은 사람 54.0%가 성감염 문제를 가지고 있다[11]. 이러한 몽골 대학생의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은 광범위하고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로 인해 성병 감염은 물론, 몽골에서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므로[11]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는 궁극적으로 생식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2],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교육은 몽골 대학생의 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와 태도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다[13]. 즉 몽골 대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알고 성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지식은 몽골 대학생의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성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한 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책임감 있는 성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우발적인 성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위험을 줄일 수 있다[5]. 또한, 성지식은 성행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14], 가치관, 태도, 규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15] 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관련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대부분 몽골 문화 및 성풍습, 그리고 몽골의 성교육에 대해 조사한 연구 정도이고[2,3,11]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이나 성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몽골 대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고 이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16]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책임있는 성태도와 성행동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지식이 필요하다.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고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17] 성과 관련된 가치는 왜곡된 성 인식을 완화하고 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 생식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몽골에서 대학생의 성 지식과 성태도 수준을 알고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성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생의 건강한 성 발달과 책임있는 성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 1)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 정도를 확인한다.
- 2) 몽골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몽골 대학생의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몽골 U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위해 선정하였다. 적절한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9.4 프로그램(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9개, 중간 효과 크기 .13,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176명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근거 하에 탈락률 15.0%를 고려하여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사전 동의서를 통하여 연구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생이다. 표집 절차는 올림바토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구글(Google)을 통한 자발적

인 연구 참여로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에게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구글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여 총 200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Ho [18]가 개발하여 사용한 성지식과 성태도 도구 승인받은 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도구를 몽골어로 박사학위를 받은 언어 전문가 1인이 번역하고, 해석이 어렵거나 문화적 차이로 혼돈이 되는 문항에 대해 몽골인 2인이 번역-역번역하여 번역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문항분석을 위해 각 범주별 변수의 그룹핑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고, 그룹핑된 변수들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의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배리맥스(varimax) 방식의 직각 회전(orthogonal rotation)을 통해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으며,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40 이상인 문항[19]을 선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선행연구[5]를 기반으로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종교 유무, 거주형태, 성경험, 성지식 획득 경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 8문항으로 선정하였다.

#### 2) 성지식

성지식 도구는 Ho [18]가 33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통한 문항의 타당도와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KR-20 (Kuder-Richardson formula-20)을 통한 신뢰도 평가를 한 결과, 성행위 3문항, 생식기 5문항, 성건강 3문항, 임신 및 출산 3문항으로 4개 영역 총 14문항으로 Ho [18]의 성지식 하부영역은 같으나, 영문 명칭이 명확하도록 명명하고 요인적재량 값이 0.4 미만인 설문 문항 19개를 삭제하였다. 각 문항은 예/아니오/모른다고 답하며, 예는 1점, 아니오와 모른다는 0점으로 점수화하였고, 부정적인 11문항은 역으로 코딩을 변경하였다. 본 도구의 점수의 범위는 0~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Ho [18]의 개발 당시 신뢰도 KR-20 값은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 KR-20 값은 .74이었다.

#### 3) 성태도

성태도는 Ho [18]가 총 42문항으로 개발한 성태도를 수정하였다.

문항분석, EFA, CFA를 통한 문항의 타당도와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크론바흐 알파를 통한 신뢰도 평가를 한 결과, 동성에 허용도 5문항, 혼전순결 허용도 5문항, 쾌락적인 성 5문항, 성 허용도 5문항, 낙태 허용도 4문항, 결혼관 3문항으로 7개 영역 총 27문항으로 Ho [18]의 성태도 하부영역은 비슷하지만 좀 더 명확한 요인 명으로 명명하고 요인적재량 값이 0.4 미만인 설문 문항 15개를 삭제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5점으로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점수의 범위는 27~135점이었다. 성태도의 점수는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하위요인별 .81~.93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주간 몽골 U시 소재 23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구글(Google)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시 몽골국립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지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눈덩이 표출법을 이용해 대상자를 표집하고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학과 교수가 연구자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몽골 연구보조원 2명이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한 후, 구글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자료수집 과정, 비밀보장, 연구 대상자 참여의 자율적 결정 등이 포함된 연구 설명문을 제시하고, 대상자들의 연구참여 동의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내외 정도이며 설문조사에 협조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91-201912-HR-021-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로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을 진행하였다.

###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지식 및 성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성지식과 성태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은 65명(32.5%), 여성 135명(67.5%)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0.54±1.78세이었다. 학력은 저학년이 62명(21.0%), 고학년은 138명(69.0%)이었으며,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6.0%, 없다는 응답은 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부모님 집이 121명(60.5%), 기숙사 24명(12.0%), 자취 43명(21.5%), 기타 12명(6.0%)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받음 135명(67.5%), 안받음 65명(32.5%)이었으며, 성관계 경험은 있다 122명(61.1%), 없다 78명(38.9%)이며, 성지식 획득 경로는 대중매체로부터 69명(34.5%), 친구 및 선배로부터 56명(28.0%), 가족으로부터 30명(15.0%), 성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14명(7.0%)이었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참는다 79명(39.5%), 별로 안 느낌 68명(34.0%), 운동 및 취미활동 37명(18.5%), 자위행위나 성행위가 각 8명(4.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인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평균 6.47±3.13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약간 낮았고, 성태도 점수는 평균 86.06±13.5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성지식의 하위변수는 대체로 평균 중간 점수이었고 가장 높은 하부요인은 생식기(2.51±1.24점)이었으며, 성행위(1.48±1.11점), 임신 및 출산(1.47±0.97점), 성건강(1.02±1.04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의 하위변수는 대체로 평균 점수 수준이었고 혼전 순결 허용도(19.75±4.37점)가 가장 점수가 높은 하부요인이었고, 쾌락적인 성(18.57±4.20점), 동성애 허용도(16.56±5.32점), 성 허용도(13.55±3.82점), 결혼관(8.43±3.18점), 낙태 허용도(9.20±2.82점) 순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교육, 성관계 경험과 성적욕구 해소방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교육과 성지식( $t=5.43, p<.001$ ) 및 성태도

**Table 1.** Differences of the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M±SD	F or t (p)	M±SD	F or t (p)
Gender	Women	65	32.5	6.05±3.03	-1.26 (.211)	88.52±11.67	1.69 (.092)
	Men	135	67.5	6.66±3.16		84.99±14.19	
Age(yr)	Mean±SD	20.54±1.78					
Education	Lower grade (1~2)	62	21.0	5.84±3.27	-1.80 (.074)	84.11±13.86	-1.13 (.258)
	Senior grade (3~4)	138	69.0	6.72±3.02		86.51±13.30	
Religion	Yes	112	56.0	6.89±3.02	1.85 (.066)	86.76±11.95	0.79 (.429)
	No	88	44.0	6.06±3.20		85.21±15.07	
Habitation	Parent's house	121	60.5	6.06±3.15	2.46 (.064)	84.36±14.60	2.41 (.069)
	Dormitory	24	12.0	6.52±3.29			
	Live by self	43	21.5	7.52±2.99			
	Others	12	6.0	6.08±2.56		91.69±13.05	
Sex education	Yes	135	67.5	7.18±2.96	5.43 ( $<.001$ )	87.40±13.18	2.21 (.028)
	No	65	32.5	4.62±2.72		82.55±14.63	
Sexual experience	Yes	122	61.1	6.91±3.01	2.53 (.012)	87.76±13.14	2.32 (.021)
	No	78	38.9	5.76±3.21		83.18±13.89	
Path to obtaining sex knowledge	Family	30	15.0	7.41±3.42	1.10 (.357)	88.93±10.52	0.79 (.536)
	Friends, senior	56	28.0	6.36±3.09			
	Sex-education program	14	7.0	6.64±2.76			
	Mass media						
	Others	69	34.5	6.02±3.22			
Solving sexual desire <sup>†</sup>	Bear	79	39.5	7.09±3.08a	7.41 ( $<.001$ )	87.91±11.84a	4.76 (.001)
	Exercise, hobby	37	18.5	6.58±3.13			
	Masturbation	8	4.0	9.13±1.89b			
	Sexual behavior	8	4.0	9.00±3.11c			
	Don't feel	68	34.0	5.08±2.76abc		80.45±15.70ab	

M=Mean; SD=Standard deviation; <sup>†</sup>Scheffe test: b<c<a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N=200)

Variables	Range	Mean±SD	Minimum	Maximum
Sexual knowledge	0~14	6.47±3.13	0.00	13.00
Sexual act	0~3	1.48±1.11	0.00	3.00
Reproductive organs	0~5	2.51±1.24	0.00	5.00
Sexual health	0~3	1.02±1.04	0.00	3.00
Pregnancy and childbirth	0~3	1.47±0.97	0.00	3.00
Sexual attitudes	27~135	86.06±13.54	27.00	125.00
Homosexuality tolerance	5~25	16.56±5.32	5.00	25.00
Premarital chastity allowance	5~25	19.75±4.37	5.00	25.00
Sex as enjoyment	5~25	18.57±4.20	5.00	25.00
Pleasant sex	5~25	13.55±3.82	4.00	20.00
Abortion allowance	4~20	9.20±2.82	3.00	15.00
Marriage thought	3~15	8.43±3.18	3.00	15.00

SD=Standard deviation

( $t=2.21, p=.028$ ), 성관계 경험과 성지식( $t=2.53, p=.012$ ) 및 성태도( $t=2.32, p=.021$ ), 성적 욕구 해소방법과 성지식( $F=7.41, p<.001$ ) 및 성태도( $F=4.76,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

성교육을 받은 경험과 성경험이 있는 군이 성지식과 성태도가 높았다. 성욕구 해소방법이 자위와 성행위로 풀거나 참는다는 군이 성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는 군에 비해 성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성태도는 참거나 운동 및 취미생활을 한다는 군이 성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는 군에 비해 높았다.

**4. 성지식과 성태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성지식과 성태도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성지식의 하위변수인 성건강과 임신 및 출산 영역은 성태도와 유의한 변수가 없었고, 성태도 중 결혼관이 성지식과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하위변수들은 대부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성지식은 성행위( $r=.71, p<.001$ ), 생식기( $r=.71, p<.001$ ), 성건강( $r=.71, p<.001$ ), 임신 및 출산( $r=.71, p<.001$ ), 동성애( $r=.21, p=.003$ ), 쾌락적인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Sexual act	1											
2. Reproductive organs	.34 ( $<.001$ )	1										
3. Sexual health	.36 ( $<.001$ )	.28 ( $<.001$ )	1									
4. Pregnancy and childbirth	.34 ( $<.001$ )	.33 ( $<.001$ )	.45 ( $<.001$ )	1								
5. Sexual knowledge	.72 ( $<.001$ )	.71 ( $<.001$ )	.71 ( $<.001$ )	.71 ( $<.001$ )	1							
6. Homosexuality tolerance	.24 (.001)	.16 (.027)	.11 (.126)	.10 (.181)	.21 (.003)	1						
7. Premarital chastity allowance	.04 (.576)	.16 (.026)	-.01 (.917)	.09 (.205)	.10 (.164)	-.15 (.034)	1					
8. Pleasant sex	.43 ( $<.001$ )	.40 ( $<.001$ )	.13 (.061)	.13 (.072)	.41 ( $<.001$ )	.37 ( $<.001$ )	.06 (.375)	1				
9. Sexual tolerance	.30 ( $<.001$ )	.21 (.003)	.11 (.137)	.02 (.775)	.23 (.001)	.36 ( $<.001$ )	.08 (.242)	.50 ( $<.001$ )	1			
10. Abortion allowance	.14 (.052)	.20 (.006)	.05 (.468)	.11 (.139)	.18 (.014)	.42 ( $<.001$ )	-.10 (.161)	.35 ( $<.001$ )	.27 ( $<.001$ )	1		
11. Marriage thought	.06 (.435)	.12 (.098)	-.02 (.762)	-.03 (.641)	.05 (.521)	-.01 (.906)	.15 (.035)	.15 (.036)	.22 (.002)	.16 (.026)	1	
12. Sexual attitudes	.37 ( $<.001$ )	.37 ( $<.001$ )	.12 (.099)	.13 (.076)	.36 ( $<.001$ )	.65 ( $<.001$ )	.32 ( $<.001$ )	.73 ( $<.001$ )	.72 ( $<.001$ )	.56 ( $<.001$ )	.42 ( $<.001$ )	1

성( $r=.41, p<.001$ ), 성 허용도( $r=.23, p=.001$ ), 낙태허용도( $r=.18, p=.014$ )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성행위( $r=.37, p<.001$ ), 생식기( $r=.37, p<.001$ ), 성지식( $r=.36, p<.001$ ), 동성애( $r=.65, p<.001$ ), 혼전 순결 허용도( $r=.32, p<.001$ ), 쾌락적인 성( $r=.73, p<.001$ ), 성 허용도( $r=.72, p<.001$ ), 낙태 허용도( $r=.56, p<.001$ ), 결혼관( $r=.4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행위, 혼전순결 허용도, 쾌락적인 성, 성 허용도 등에서 개방적인 성태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5.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케이스 진단 시 이상점(Outlier) 2개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93으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Tolerance(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성태도를 종속변수로 성지식의 하부요인과 성교육, 성경험 및 성욕구 해결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F=12.22, p<.001$ ). 성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지식의 하부 변수인 성행위( $\beta=.30, p<.001$ ), 생식기( $\beta=.29, p<.001$ ), 그리고 성욕구 해결방법( $\beta=-.25, p<.001$ ), 성경험( $\beta=-.16, p=.021$ ), 성교육( $\beta=-.16, p=.028$ ) 순이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 $R^2$ )는 .20로 설명력이 20.0%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관계 경험은 61.1%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6,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지식 획득 경로는 대부분 대중매체 및 친구 및 선행로부터 얻는다는 대학생이 62.5%로 한국 대학생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1]. 대학생 시기의 성행위는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경향이 강하므로[7] 올바른 피임법과 성병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님이나 학교에서의 신뢰감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가 필요하다.

몽골 대학생의 성 지식 점수는 평균 6.47점이었고 하위변수는 생식기가 가장 높았고, 성행위, 임신 및 출산, 성건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2]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본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46.2점인 반면 선행연구[12,20]에서는 62.3점, 47.3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로 성병 감염이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대표되는 몽골에서 성교육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생식건강과 성생활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조차 성교육에 불편함을 느끼고 당황해하는 현황[11]을 고려할 때,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을 향상을 위해 성건강, 임신 및 출산, 성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몽골 대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평균 86.1점이었고, 하위변수는 혼전 순결 허용도가 가장 높았고, 쾌락적인 성, 동성애 허용도, 성 허용도, 결혼관, 낙태 허용도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2]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는 63.7점인 반면, 선행연

**Table 4.** Predictors of Sexual Attitudes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74.55	2.15		34.71	<.001
Sexual knowledge					
Sexual act	3.62	0.88	0.30	4.11	<.001
Reproductive organs	3.14	0.77	0.29	4.08	<.001
Sexual health	-0.58	0.97	-0.05	-0.60	.551
Pregnancy and childbirth	-0.71	1.06	-0.51	-0.67	.504
Sex education <sup>a</sup>	-4.85	2.20	-0.16	-2.21	.028
Sexual experience <sup>b</sup>	-4.57	1.97	-0.16	-2.32	.021
Solving sexual desire <sup>c</sup>	-1.54	0.43	-0.25	-3.61	<.001
Adjusted R <sup>2</sup> =.20, F=12.22, p<.001					

<sup>a</sup>Dummy variables (Sex education: Yes=0, No=1); <sup>b</sup>Dummy variables (Sexual experience: Yes=0, No=1); <sup>c</sup>Dummy variables (Bear=0, Exercise, hobby=1, Masturbation=2, Sexual behavior=3, Don't feel=4);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beta$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R<sup>2</sup>=Total explained variance

구[12,20]에서는 56.0점, 60.3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는 높게 나타나 개방적인 성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몽골 사회의 동거와 출산 및 결혼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개방적인 성관계[14] 및 성 인식과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몽골 대학생의 성관계 시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로 인해 성병 감염은 물론,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 성교제와 피임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혼전 순결의 중요성과 쾌락적인 성 및 성 허용도 등에 대한 허용적인 성 인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몽골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교육을 받고 성경험을 한 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20,22-24]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성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20], 성지식을 알고자 하고[5], 본인의 성 경험으로 성 문화에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으로[18,20] 생각된다. 따라서, 성태도가 개방적인 일부 몽골 대학생에게 허용적인 성 태도와 공중보건 문제와의 상관성 등을 교육함으로써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성적 욕구를 참거나 자위 및 성행위를 통해 성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학생이 성적 감정을 별로 느끼지 않는 대학생 보다 성지식과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성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대학생은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20], 성지식을 알고자 노력하며[5] 개방적인 성 태도를 보일 것이나[25], 성 욕구를 느끼지 않는 대학생은 성 충동이 없기 때문에 이성교제의 필요성 및 성 경험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성 지식을 알려고 하거나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성지식이 성행위 및 성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성태도는 성행위, 성지식, 결혼전 순결, 쾌락적 성, 성 허용성, 결혼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과 성태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20,26]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분석한 선행논문[5]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5] 결혼전 순결, 쾌락적 성, 성 허용성, 결혼관에 대한 올바른 성지식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성태도를 배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몽골 대학생의 성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 지식의 하부 변수인 성행위, 생식기이었으며, 성욕구 해결방법, 성경험, 성교육 순이었다. 일부지만 성지식이 성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성지식이 올바른 성행동과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18]으로 생각된다. 성지식 및 성교육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며[5,18,27]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고[28]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5,29]를 고려할 때, 성에 대한 태도를 바르고 도덕적으로 형성되게 하는 성교육의 중요성이 크다[27]. 즉, 몽골 대학생의 개방적인 성태도를 교정하고 긍정적인 성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행위와 생식기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성태도가 성지식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12] 몽골 대학생의 성욕구 해결방법과 성경험에 대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성 교육이 필요하다.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평생의 성 가치관과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몽골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몽골 대학생의 발달단계별 성변화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성지식 교육이 필요하다[30]. 또한, 몽골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성지식이 성행위와 생식기 지식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성욕구 해결방법, 성경험을 포함한 성행위와 생식기에 중점을 둔 올바른 성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규적인 교육과정에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사회적, 국가적으로 몽골 대학생의 개방적 성태도로 유발될 수 있는 생식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대와 국가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 결론

본 연구는 몽골 대학생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몽골 대학생은 절반 이상이 성경험을 하였고 성지식 획득은 대중매체, 친구 및 선배로부터 얻으며, 성지식 수준은 낮고 성태도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과 성경험이 있고 성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대학생이 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지식을 알고자 하는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지식 중 성행위와 생식기이었으며, 성욕구 해결방법, 성경험, 성교육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성행동과 책임감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몽골 대학생이 신뢰성이 높은 제도권 하의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반면 비제도권 하의 신뢰성이 낮은 통로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므로 건강한 생식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적 지식과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성지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성개방적인 성 허용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국한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몽골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외 다른 변수도 추가한 비교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하고, 한국 대학생과의 비교 연구로 확대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ORCID**

Kim, Jin <https://orcid.org/0000-0003-3143-5747>  
 Cha, Nam Hyun <https://orcid.org/0000-0003-3956-4551>

**REFERENCES**

1. Yu WS. The tradition and present situation of pastoral nomadism in the Mongolian plateau.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2012;67:349-80. <https://doi.org/10.17326/jhsnu..67.201206.349>
2. Shin HD. Culture shock! Mongolia: A guide to customs and etiquette. Seoul: Whistler; 2005. p.121-30.
3. Park HY. A study on the sex folklore in the nomadic culture of mongolia. *The Asia Gangwon Folklore*. 2005;19:559-73.
4. Yoo GS, Ki NH, Kim MJ, Yang DY, Yoon JE.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intercourse and knowledge: A comparison of two cohorts in 2008 and 2018.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9;24(1):37-54. <https://doi.org/10.13049/kfwa.2019.24.1.3>
5. Seo EJ, Cha NH. Analysis of domestic studi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1985-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1;7(1):162-9. <https://doi.org/10.17703/JCCT.2021.7.1.162>.
6. Nam MA. A study on the sexual sens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000;9:27-71.
7. Student Health Promotion Division of Nagoya University. Student health promotion month: education organized as part of the campaign [Internet]. Ulaanbaatar: Nagoya University; 2019 [cited 2019 September 26]. Available from: <http://student.num.edu.mn/?p=6999>
8. Lkhamkhu M, Chin MJ. The transnational marriage experiences of the Mongolian married-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0;15(2):31-48.
9. Ju JA. The Asian church goes II 13. Dreaming of Genghis Khan of Mongolia (5). *Catholic Newspaper*. 2006 July 2; Sect. 13.
10. Eoyong E. Status of family relations in Mongolia. Ulaanbaatar: University of Ulaanbaatar; 2010. p.101-25.
11. Barcelona D, Laski L, Gerdits C. Universal sexuality education in mongolia: educating today to protect tomorrow.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Research*. 2002;12:1-39. <https://doi.org/10.31899/pgy2.1004>
12. Koo SM, Kim HJ.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2):1-11.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1>
13. Robinson KH, Smith E, Davies C. Responsibilities, tensions and ways forward: Parents' perspectives on children's sexuality education. *Sex Education*. 2017;17(3):333-47. <https://doi.org/10.1080/14681811.2017.1301904>

14. DiClemente RJ. Review: Reducing adolescent sexual risk: A theoretical guide for developing and adapting curriculum-based program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on Children: Informing Policy for Children at Risk*. 2011;2(2):1-2.
15. Kim SJ, Mon ST, Kang HS.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1;20(4):434-43. <https://doi.org/10.12934/jkpmhn.2011.20.4.434>
16. Shin HW, Lee JM, Ji YM.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perceptions and actualities of sex educ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par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9;25(3):312-23. <https://doi.org/10.4094/chnr.2019.25.3.312>
17. Gakumo CA, Moneyham LD, Enah CC, Childs GD. The moderating effect of sexual pressure on young urban women's condom us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11;35(4):14-21. <https://doi.org/10.1002/nur.20465>
18. Ho SM.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9. p.80.
19. Bagozzi RP, Yi Y, Phillips LW.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91;36(3): 421-58. <https://doi.org/10.2307/2393203>
20. Kim NH, Park Y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5;7(2):17-42.
21. Woo NS, Ka YH. A study on the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10(2):113-33.
22. Ok JD, Woo JY, Yoon BC, Park M.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n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17;18(2):63-78.
23. Lee SJ. Sexual knowledge of university students.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2018;8(1):69-82.
24. Lee EM, Kim KY.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sexual attitude of parents, and depression on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7;25(3):155-61. <https://doi.org/10.17547/kjsr.2017.25.3.155>
25. Woo GH.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1. p.8.
26. Im MY, Mun YH.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middle school boys toward sexu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3;14(2):223-31.
27. Park MH, Park MH. Effects of sex education on elders' knowledge and attitude regarding sexualit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0;12(1):62-71.
28. Min HY, Lee JM, Min HY, Jeong YW. University freshman's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9;25(2):238-50.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2.238>
29. Kim MO.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8): 3876-86. <https://doi.org/10.5762/KAIS.2013.14.8.3876>
30. Kar SK, Choudhury A, Singh AP. Understanding normal development of adolescent sexuality: A bumpy ride. *Journal of Human Reproductive Sciences*. 2015;8(2):70-4. <https://doi.org/10.4103/0974-1208.158594>.